



# 해외 양계업은 지금....

- 편집부 -

## 중공축산업 증가추세

중공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1987년도 중공의 육류생산은 '돈육이 전년보다 36만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생산량은 전년보다 20만톤 증가한 2,132만톤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를 육류별로 보면 돼지고기 84%, 쇠고기 3%, 양고기 5%, 닭고기 8%이다.

지난해 중공의 육류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돼지고기의 생산이 줄어든 이유는 곡물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사료용곡물의 배정이 제한된데 있다. 또한 사료업체의 곡물구매기간을 여름철이후의 곡물수확시기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사료공장의 저장시설 부족 및 자금압박으로 사료생산도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특히 도시주민들의 돼지고기공급 부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정부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료업체는 정부에 대해 사료곡물의 연중구매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중공은 의욕적인 농산물증산계획

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증가를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곡물의 경우 1985년 이후 생산증가는 연간 1천만톤 수준이나 소비증가는 연간 1천 5백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당국은 곡물의 효율적사용을 위해 금년도에 닭고기 및 초식가축고기 생산을 전체 육류의 2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 한다.

[News Letter. 5월]

## 대만 칠면조육 수입개방

대만은 미국산 칠면조고기 수입개방 문제와 이로인해 발생하는 계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받는 대만 양계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만 양계협회에 의하면 1986년에 50톤에 불과했던 대만의 칠면조고기 수입이 1987년 9월부터 연말까지 주로 미국에서 칠면조 날개와 다리가 1,800톤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고환, 모이주머니, 간 등이 같이 수입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만의 육계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의 55~70%

수준에 머물고 구정 성수기에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만정부는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만 양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23일 칠면조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대미무역마찰이 심화되자 대만정부는 5월 1일부터 다시 칠면조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같은 대만정부의 조치는 교역상 미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역보복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대만의회로 부터 상당수의 의원들이 반대의견과 경제관료의 사임을 요구하였을 뿐만아니라 수천명의 농가들이 미국산 칠면조의 덤핑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News Letter. 5월]

## 미국가금산업 전반기 어려움 예상

미국의 금년 전반가 동안의 채란, 브로일러, 칠면조 생산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그러나 채란업과 브로일러는 연말

이전에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계란 : 88년 계란값은 65~69센트/12개당으로 이것은 겨우 생산비선에 해당한다. 수익은 후반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타나리라고 보지만 전반기 동안은 지속적인 생산과잉이 이루어져 손해가 계속될 것 같다. 생산이 감소됨으로써 산업의 통합이 이루어질때 수입이 생산비를 초과하게 되리라고 본다.

브로일러 : 금년들어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중의 하나로 쇠고기, 돼지고기와 시장경쟁이 치열하다.

금년 전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며 가격 회복은 생산이 감소하여 경쟁력이 증가하면 회복되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칠면조 : 고기생산을 위한 칠면조 산업은 88년에 접어들어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것이 후반기나 돼서야 회복될 것 같다. 가격은 파운드당 40센트보다 약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파운드당 50~10센트의 손실을 보고 있다.

[P. I. MAR. 88]

### 이태리 계란소비량 저조

이태리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87년의 상반기 이태리 계란가공품과 식용계란의 수입이 증가되었다.

총 계란수입은 5억개로 밝혀졌는데 86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4이 늘어난 양이다. 금년의 전체적인 수입량은 10억개가 능가할 것으로 보는데 주요 공급국가는 네덜란드와 서독이다.

이와 같이 수입을 늘리는 것은 시장조절을 위해서이다.

이태리의 계란가공품 수입이 매우

활발하게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매액으로 볼때 87년에 78%가 늘어났다. 주로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왔는데 판매도 2배이상 신장되었다. 제3국가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했는데 이스라엘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주로 들어왔다. 달걀가공품은 대부분 난황인데 동결이나 액체상태로 된 것이다.

이태리의 자국내 계란생산도 역시 증가를 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11,000백만개 이상으로 산출되는데 86년보다 5%정도가 증가한 양이다. 소비가 증가를 보였음에도 1인당 소비량은 198개에서 머물러 EC 국가중에서 가장 낮다.

[P. I. MAR. 88]

### 말레이지아 계열화 추진

말레이지아의 닭고기 생산량은 연간 26만톤의 수준에 이른다. 1인당 연간 평균소비량이 16kg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1년까지는 20kg으로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다.

사육규모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한데 1만수 이하의 농가가 약 4,600가구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만수 이상의 농가는 겨우 0.4%에 해당한다.

말레이지아의 경우에도 점차 수직적인 통합체계의 계열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Kuala Langat의 Morib에 있는 UFM社가 브로일러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최초의 사료회사이다. 지난 2년간에 걸쳐 UFM社가 100명의 사육가들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해주고 출하시 협정가격에 따라서 가져가는 계획을 시도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계열화사업에 최종 단계

인 가공공장을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캔터키후라이드치킨社도 국내시장수요와 수출을 목적으로 계약사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병아리까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레이지아는 현재 10~15%의 계열화가 되어 있는데 2001년까지는 브로일러 및 계란생산에 있어 80%의 계열화가 이루어 지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계열화를 이루기까지에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될 것으로 각 단계별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상호협조 체계가 이루어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평적이나 수직적인 계열화를 통해서 참여하는 사료회사의 경우 업계에 대한 관계를 더 많이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P. I. MAR. 88]

### 나이지리아 양계산업

나이지리아의 양계산업은 계열회사가 주축이 되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하고 있다. 이 계획중에는 생산자들에게 최선 양계사육 기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몇년 동안 외국 회사인 IG社(파나마)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당국 발표에 의하면 양계산업지원금을 8백만\$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6백만\$이 지불되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양계산업은 나이지리아 당국이 60%, IG社가 40%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P. I. MAR. 88] **양계**